



OC교회들, 체육으로 화합 다져 24일 세리토스의 밸리크리스천교회에서 열린 OC교회연합 친선 체육대회에서 육상 50m 달리기 종목에 출전한 어린이들이 출발하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가 매년 개최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32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가주시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베델한인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를 비롯한 OC 지역 10여 개 교회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 속에 교인들간의 화합을 다졌다.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가 주최한 찬양기도회에 이 지역 10개 교회의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다.

아름다운 연합의 한자리 마련

아름다운 연합의 한자리가 남가주 동부지역에서 마련됐다.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김민섭 목사)가 교회연합 찬양기도회를 24일 오후 6시 30분에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담임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모인 동부지역 성도들은 △회개와 부흥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국의 순교자 신앙 △세계 경제 회복 △중동의 민중 운동과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했다. 또한 동부지역 연합 찬양팀이 참여해 여러 찬양곡을 인도했다.

누가복음 15:23-32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정동석 목사(나성교회)는 “기도원에서 3일간 금식하며 산기도를 할 때,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지워 달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힘들더라”면서 “내가 죽은 자리는 갈보리 십자가인 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내가 금식해서 내 의로 나를

죽인다는 것은 어렵고 없는 말이였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상에서 용서된 것이었다. 그게 어느날 마음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 목사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배워서 잘 알지만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다”며 “나의 주 내 죄를 씻었네라는 찬양은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부르는 것이다. 기독교는 실체다”고 했다. 또 그는 “내 신앙이 육에 속했는가, 아니면 영에 속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거듭나는 영성 중심의 신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사회 전병주 목사(나성교회), 기도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 설교 정동석 목사(나성교회), 중보기도, 광고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축도 김민섭 목사(엠마오장로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인종을 넘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분

파사데나장로교회 다문화연합예배

“우리는 수많은 일에 두려워 하고 불안해 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우리를 버릴까 두려워 한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까 두려워 한다. 그러다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 누가 우리의 선장인지 마저 잊어 버린다.”

지난 24일 다문화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 파사데나장로교회의 설교단에 선 마크 스머트니 목사의 메시지가 백인, 라티노, 한인 회중이 함께 자리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외모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파사데나장로교회의 성도라

는 공통분모 아래, 그동안 민족별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파사데나장로교회는 매년 3회 다른 인종들이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드린다.

올해 첫 연합예배인 이번 예배는 성령경 목사(한인회중 담임)의 어린이 설교와 사회 및 통역, 마크 스머트니 목사의 설교, 르네 로더리 목사의 성찬식으로 진행됐다.

교회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듯 예배당을 메우고 있는 백인들의 다수는 60년대 미국 민권 운동의 역전의 노장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이민 선조자들 등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었다. 백인과 라티노, 한인이라는 인종의 구별 없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에 더해 이 예배가 지닌 독특한 점은,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영아를 비롯해 어린이들도 예배당 1층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머트니 목사는 “우리의 두려움을 헤쳐나갈 주님의 향배”라는 제목으로 15년 전 자신이 체험한 사건을 통해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에 대해서 전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속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곧 바람이 멎고, 아들이 웃고 나도 웃었다.

그 와중에 손녀는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예수님 제자들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배를 뒤집을 듯이 일기 시작했다. 이내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음이 두려워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주님께서 그 모든 파도를 향해 말씀하신다. ‘잠잠하라. 평안하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은 모두 잠잠해진다.”

“돈, 직장, 자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 2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자선단체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리세금사각, 세무감사내비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사,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mo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수업시작일: 8월 26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하나님의 일 최우선 하는 직분자 되길



감사한인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34명의 임직자를 세웠다.

29년 전인 1983년 3월에 교회를 개척, 현재 교인 1800여명의 교회로 성장해, 코로나, 인랜드, 다이아몬드바, 어바인에 개척교회를 세우며 지역 복음화에 힘쓴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교단 소속인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다. 이곳에서 지난 24일 오후 4시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 및 취임 예배가 성황리에 개최돼 34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이날은 특별히 헌직장로들이 신임장로들을 포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로에 노준중, 안도성, 양규원 씨가, 안수집사에 강재연 씨 외 9명이, 전임 안수집사에 유요한 씨, 권사에 광경점 씨 외 19명이 임직됐다.

‘직분자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지용용 목사(수정한인교회)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산다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영재 목사(한국총회 총무)는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종들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고, 권필립 목사(복음의빛교회)는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변화된 후에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나의 부모님을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예배의 인도와 축사는 김영길 목사가, 대표기도는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가, 교회헌액 및 임직자 소개는 김영필 장로가 맡았다.

안수위원장은 지용용 목사, 안수위원은 심상은 목사, 김선옥 목사(미주에델교회), 안호준 목사(축복산교회)가 맡았다. 문의) 213-382-3258

빅터 박 기자

파사데나장로교회 다민족 하나되다



파사데나장로교회의 다민족 회중들이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 1면으로부터 계속 설교 이후에는 트리니티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져 거룩한 예배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성가 ‘캄캄한 밤 사나운’을 1절과 2절은 한국어로, 3절은 스페니시로, 4절과 5절은 영어로 불러 연합예배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냈다. 이러한 다문화적인 요소는 성찬식에서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로더러 목사는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로 성찬식 성경 본문을 낭독한 후 성찬식을 집례했다. “We

Came As Guests Invited” 외 2곡의 성찬송은 성찬식에 경건함을 더해주었으며, 성가대가 성찬송을 부르는 동안 성도들은 직접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 성찬에 참여했다. 스머트니 목사의 축도 후 고성해 집사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이후에는 2011-12년 결산보고 및 직분 임명에 대한 공동의회가 진행됐으며 한인회중이 준비한 바비큐 점심교제가 있었다. 한주영 기자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



김동호 목사가 갈보리침례교회에서 비즈니스 예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갈보리침례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김동호 목사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김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하늘 뜻, 이 땅에’라는 대주제 하에 자녀의 권세(요1:12-13), 좋은 제자(눅5:1-11), 천국의 사고방식(마20:1-16), 사랑과 책임(마5:38-48), 세가지 시험(마4:1-11)이란 소제목으로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했다.

25일 저녁 부흥회에서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식에 대해 김 목사 자신이 직접 경험한 비즈니스를 예화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었다. 김 목사는 “일반 기업은 빵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빵을 판다”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품고, 탈북자들이나 아프리카 말라위

주민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세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박스 공장을 세워 운영하는 가운데 손해 보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탈북자들이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자신을 가리켜 “저는 본업이 목사이지만 요즘은 거의 반 장사꾼 같다”며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은 사회적 기업을 세워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함이며, 이 일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곧 선교”라고 덧붙였다.

그는 “갈보리침례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고 성도들 모두가 합목적적으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함으로 이날 설교를 마쳤다.

이날 집회에는 갈보리침례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한편, 이 교회는 지난 4월 박형택 목사가 시무해 오던 기존의 갈보리침례교회와 강진웅 목사가 시무해 오던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가 통합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한나 기자

베데스다대 제35회 학위수여식 거행



학위를 수여받은 베데스다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가 제3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 목회학·성서학·신학·음악·디자인·유아교육·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배출했다. 6월 23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총장 진유철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격려했다.

1976년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중앙성경대학이란 이름으로 남가주에 설립한 이 대학은 지난 35년간 총 1187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198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후 ABHE로부터 2001년에 정회원자격을 받아내며 미주 한인 기독교 대학 중 최초로 정식 학위 인가를 획득했다. 이어 TRACS로부터도 2006년에 정회원자격을 획득해 냈다. 현재 캠퍼스는 애너하임에 있으며 공식명칭은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이다. 한인 신학교로 시작됐지만 현재 영어권 학생의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국제화된 상황이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이 학교 이사장이자 한국 한세대학교 총장인 김성태 목사가 축사를 보내 왔으며 한세대 강승모 교수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준형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에서!

예약 및 문의: 고세희

1539 E. Howard Stree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트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드립니다.



오상철 박사



박희민 박사

1년 3개월간 4천명 설문조사
교회 현안들 다양하게 다뤄
건강한 교회 위한
전략적 접근법 도출될 듯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완료돼

북미주 한인교회의 실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완성을 앞두고 있다. 미국 이민신학연구소가 지난 1년 3개월간 북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통계를 거쳐 구체적인 분석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미 지난 18일 나성영락교회에서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열려 이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공개됐으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LAX 인근 호텔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자료를 분석, 평가하는 전략 회의도 열렸다. 이 설문조사는 이민교회 역사 100년을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통계로 정리해 낸 최

초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미래와 방향성을 예측케 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의 1세 목회자, 2세 목회자, 평신도, 다민족 4109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는 이민교회백서 형식으로 출판을 앞두고 있으며 본지에서는 매주 한차례씩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 중요한 내용을 뽑아 현장 목회자들의 평가와 함께 분석, 공개할 계획이다. 이 기념비적인 작업을 감당했던 이민신학연구소의 소장 오상철 박사와 내셔널서베이위원회 박희민 박사를 만나 본다.

-한인 이민교회 최초의 역사적 평가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박희민 박사: 지금까지 4천여 이민교회에 대한 구체적인고도 정확한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현 이민교회의 정확한 주소가 어디인지, 그 실상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장기적인 목회 계획이나 비전을 수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오상철 박사: 한인교회가 그동안 영성에 있어서는 미국교회의 주목을 받아 왔지만 '데이터에 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만 갖고 목회를 평가, 계획하며 시

행작을 겪었다. 이제 이 자료에 기반해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1세 목회자와 2세 목회자의 갈등, 사일런트 엑스터스, 교회의 권위 실효 및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설문도 진행됐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문은?

오: 1세 목회자들 대부분이 보수적인 신학 성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64.9%) 그런데 그 보수적 신학에 갇혀서 이민사회라는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의 현안들에 무관심한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박: 성도들이 예배 중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설교였다.(전체 1779명 중 1622명 중복응답) 담임목회자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역시 설교였다.(전체 627명 중 616명 중복응답) 그만큼 이민교회 목회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설교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착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었다.(전체 603명 중 425명 중복응답)

박: 설교를 통해 영적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설교한대로 사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세 목회자들도 헌신을 1세 목회자로

부터 배울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60.8%)

-이민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목회자의 자질(1765명 중 954명)과 내적 갈등(1127명)이 꼽혔다. 그 원인으로는 재정문제가 51.9%, 담임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46.7%로 나타났다.

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목회자와 장로의 갈등에서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그것이 교회 내적 갈등 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요한 원인은 역시 재정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회 예산을 어느 곳에 사용하느냐에 대한 목회자의 초점과 평신도들의 초점이 다를 경우 이것이 갈등으로 증폭될 소

지가 높다.

-2세와 갈등 문제는 어떤가?

박: 2세 대다수는 한국적 문화가 부담이 된다고 밝혔고 1세의 강한 명령조의 목회 방식에 불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가 176명이었던 데에 반해 이에 응답하지 않은 이도 441명이었다. 1세대 역시 2세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1세 목회자와의 문화적 갈등(490명 중 283명 중복응답)을 꼽았다.

-이 작업을 완료하며 한 말씀씩 덧붙인다면.

박: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목회자, 신학자, 신학생들이 이 자료에 근거해 더욱 학문적으로, 목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자료 자체를 구체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학교에서 이 자료에 근거해 과목이 개설되고 연구가 계속 되길 기대해 본다.

오: 현재까지 한인교회의 사역 부분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 사역이 없었던 점이 참 안타까웠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으니 이 자료를 통해 이민신학연구소에서는 한인교회의 갈등, 2세 사역, 사회 참여, 예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구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전혀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연락처 :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천연한약재로 증상별 조제 처방 김기약 \$20-\$30선 가능
여행자보험/건강보험/교통사고(스마트폰 검색가능)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하비드)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그렉 (Greg) 직통: 213.278.5927 Office: 323.556.5386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트와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약도 [Bus 20번]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숨어 있는 장애인 찾아 섬기는 선교회

(Search & Serve)

살림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 인터뷰

살림장애인선교회가 얼마전 창립기념 및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 단체의 대표인 박모세 목사는 무역회사 수출부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절을 보낸던 중 사고로 두 아이를 잃고 아내마저 중증장애인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아픔은 그의 아버지의 서원 기도를 이뤄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애인 사역자의 적임자로 키우시고 연단시켜 살림장애인선교회를 창립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같은해 9월 한국에서 '사랑의휠체어보내기운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1차에서 24차까지 휠체어 7,010대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30,600여점을 37,000여명의 해외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그는 지금도 장애인들 가운데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휠체어를 보내 세상과 교류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 그들을 주님게로 인도하는 꿈을 꾀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계기는?

아내와 결혼한 후 통역교사를 거쳐 무역회사에서 수출부장으로 일하며 두 자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살 만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잘 나갔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1989년 8월에 가족 캠핑을 위해 아내가 아이 둘을 태우고 임진각 방향으로 가던 중 맑은 편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공장버스가 경운기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와 아내가 운전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 딸은 천국에 갔고, 아내는 살아났지만, 목뼈와 신경이 손상되어 어깨 아래가 마비됐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받아 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기였을 때 생명이 위태로운 저를 위해 저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해인 1990년 기독교대학(현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후 아내는 2년동안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

저는 그동안 야간으로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장도 학교, 병원, 집을 오가는 경로까지 평탄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고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신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돌보면서 제가 과연 일반 목회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물리치료를 받

는 병원에서 장애인들을 600여명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특수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93년 목사안수를 받고, 도미해 칼스테이트주립대 노스리지에서 '근육운동학'을 공부했고, 1997년도에 매스터스세미나리(The Master's Seminary)에서 M.Div.를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고 후 10여년의 세월 동안 저를 훈련시켜서 1999년 6월에 선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장애인들이 맡아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둘 다 장애인이면 기동력이 없고, 어려모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

하지만 아내가 제일 중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밝게 사며 장애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빛이 되어 주니 이후에는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고 잘 따라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고, 가족들 또한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의 아픔은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더 큼니다. 제 아내같은 경우는 부자유함과 감각이 없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아무리 더위도 땀이 나지 않아, 특히 여름에 더 힘들었습니다. 또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 또한 간병하는 입장에서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병이 얼마나 어렵다면 '간 병에 효자였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불화를 겪습니다. 미국의 일부 중한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 80에서 9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왜 휠체어를 보내며, 미국에도 장애인들이 많은데 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휠체어를 보내나요?

휠체어는 장애인같이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과 교류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기동력을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혜택이 좋습니다. 휠체어도 다 지원이 되고, 의료 쪽으로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사는 장애인들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 국산 휠체어를 사용해 보니 비싸지만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999년 6월에 선교회를 세우고 얼마되지 않아 9월부터 미국장애인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1차 휠체어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휠체어를 보냈고, 이후에는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의 나라에 휠체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들에게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려 이 운동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의 지원을 통해 지금 24차까지 휠체어 7,010대와 기타 의료보조 기구 30,600점을 보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떤 사역이 있나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살림장애인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사역이 있고, 선교회 회원 및 봉사자들과 지역교회 권사님들을 주축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의 센터 재활실에 모여 중보기도모임을 갖고 있으며, 미용사 두 분이 목욕집회 전에 장애인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고, 한의사분들은 침술이나 한방치료로 돕고 계십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 주 5일동안 재활운동실과 다용도 재활실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개방합니다.

매해 5월에는 경로잔치사역, 매해 6,7월에는 장애인가족 초청 आयु회를 실시합니다. 또 찬양팀을 구성해 장애인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애인 가족수련회를 실시하고, 매년 성탄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중 선별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미 재활운동실을 주 5일이나 개방하고 있는데 나아가 광고까지 내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표어가 '찾아 내어(Search) 섬기다(Serve)'입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숨겨져 있고,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뽑은 통계계를 보면 한 국가의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을 10%로 보는데 미국은 15%로 본다고 합니다. 예로 북한은 3%, 중국은 5%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로 봅니다. 그럼 인구가 50만이라면 장애인 수는 5만 일 것입니다. '남가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어디에 있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장애인을 외출시키는데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아내를 외출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데에 3-4시간 가량 걸립니다. 씻겨줘야 하고, 운동시켜줘야 하고, 옷 입혀 주는 등 나오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은 누워서 많이 지내게 되고, 그러다 육



장도 생기고, 병이 더 생기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주 5일 재활운동실을 개방하는 동안 숨어 있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체 건물을 얻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자체건물에 대한 비전은 10여년 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다 실질적으로 작년, 지금 입주한 이 건물을 찾게 됐습니다. 이 건물은 95년된 허름한 창고건물이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지난 4월말에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2층이나 3층에서 지냈는데 갖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에어컨 고장으로 정상인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랑의휠체어보내기 기금미련 음악회인 '휠체어사랑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인지 한인교회의 지원금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음악회를 통해서 기금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음악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은 9번째 음악회로 원서연합감리교회에서 오는 7월 8일 주일 오후 7시 저의 독창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인구 70억 중 7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환경이 좋은 데도 장애인 크리스천이 10%도 안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1%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교회에 한번도 나가보지 못한 장애인들이 6억여명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휠체어보내기운동을 통해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를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가 장애인들이 마음껏 내집처럼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재활운동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전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뿐 아니라 복음까지 전하는 것이 비전이요 꿈입니다.

빅터 박 기자



박모세 목사와 박성철 사모

당분은 1/2로 낮추고 건강은 2배로
명품 저당도 크림꿀

아이디호 크림허니 캘리포니아 딜러십 획득

당뇨 위장병 성인병, 설탕대용으로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건 모두 알고계신 사실 천혜의 청정지역 아이디호 고산지 클로버와 알팔파에서 추출한 야생건강꿀

Cox's Honey
California Exclusive Distributor
LA, OC지역 무료배달

100% 다크본 퍼

10개/1보루 50% Sale \$30

도·소매 사업자와 세일즈 하실분 모집

수자본이로

HYUNDAE BIDET™ 현대비데 미주총판
Non Electric, Electric & Hybrid Type

현대비데 (냉,온수)와 설치비+Tax 포함

\$119.99

1년 워런티

- 비데기능은 오직 세정
- 물탱크 없이 직수로 사용
- 위생적인 비데
- 한국제품의 우수성

- ① 여성전용 노즐과 노즐 자동세척기능
- ②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 영구적 사용
- ③ 오도염, 방광염, 냉대하 및 자궁질환, 향문 질환 완화와 예방

타주 및 지역 대리점 모집

썩담배, 금연초~!!

100% 다크본 퍼

“기관지에 썩담배 효과”

아직도 담배때문에 걱정하신가요?
100% 썩담배를 원료로 만들어 몸에 좋은 담배 대용품!
금연과 더불어 기관지 특성제거와 썩담배효과까지!
LA, OC지역 무료배달

슈퍼파워

남자의 힘! 여자의 행복!

- 발기부전, 조루증, 전립선
- 신속하고 5일 간의 지속적인 효능
- 복용 후 1시간 이내 100% 효과
- All Natural
- 근본적 성기능 개선
- 1회 1알 만족한 효과

LA, OC지역 무료배달(2box 이상)
도매 하실 분과 OEM 생산 문의 213-505-3355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린도후서 2:12-16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지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본문 12-13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적잖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9:4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 주기 위하여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 디도를 보냈고 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흑어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2차 장소로 정한 곳이 마게도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디도가 도착하지 않자 사도 바울의 걱정이 증폭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문이 열린 상태임에도 디도를 빨리 만나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본문 14의 말씀은 절망 중에서도 비전적 소망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사실이 확실하고 내가 회개해서 옛 습관과 옛 습의 목적과 방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고 쓰임 받고 있다면, 흑어 비판적이고 절망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크고 요긴히 쓰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확실하고 깨달아질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데 신경을 일이나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기대를 모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절망적인 상황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진정함 그리스도인의 향기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제국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결국엔 폴리갑을 잡아가기 위해 군대가 출발하자 폴리갑은 기도하며 숨어있던 처지였습니다. 폴리갑은 하나님께 자신이 향기로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이 단두대에 오를 수 있게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폴리갑이 하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베개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그 불길에 자신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후 하나님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하고 로마군을 찾아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많은 사람을 선동했다는 죄값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함께 동행하던 친구가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가 좋고 복음이 소중하다 해도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마디만 하게. 그러면 내가 옆에 진언하여 사면하게 하고 너를 고관대작으로 직위도 줄 수 있도록 해 주겠네”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 부탁을 거절하시거나 나를 무시하신 일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네”하고 대답합니다.

그는 화염에 목이 막혀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까지 감사의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중들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폴리갑이 살아서 믿게 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음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연함과 담대함,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향기는 화려함이나 거창함은 없었지만 은은히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전에 의정부에서 집회할 때 어느 교회에 최 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좀 완벽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돈을 벌러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항상 술에 취해 들어 왔습니다. 아내는 믿음으로 살면서 동반자를 만나 짝을 이루었는데 아이를 낳고 살면서 남편도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교회 얘기만 꺼내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아내를 쥐 잡듯 두들겨 때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자기를 지옥 안가게 하려고 이토록 모든 것을 참아 가며 자기를 위해 성질도 죽이고 비위도 맞추며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토록 개 패듯 때려 밥상을 뒤집어 엎고 할 수가 있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 안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걸리든가 비참하게 되어 죽을 거야. 두고 보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의 행패가 더욱 심해져서 번 돈도 가져다 주지 않고 도박도 하면서 그 가정은 더욱더 생지옥이 되어 갔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대로, 좋게 대하면 좋게 대해 주고 심하게 대하면 심하게 대했습니다. 이때까지 이 아내는 교회는 다니면서 천국복음을 들었고 천국에 갈 기대도 컸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흥회 시간에 첫 날부터 왔습니다. 메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함으로 자기가 허물어지기 시

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까맣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 히려 마귀의 악취를 풍겨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졌습니다. 하루는 부흥회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들어오면 칼로 죽여 버린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칼을 손에 들고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칼을 쥐고 잠이든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을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 붙들어 기도하게 하셨다고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이 그동안 원수 같지만 했는데, 지금은 그토록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칼을 치우고 남편의 손을 모아 잡고 머리를 감싸 안고 그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잠이 깬 남편이 그간 남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편에게 잘못해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편이 지금까지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남편도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의 일들을 서로 자신의 탓이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부가 새로 만난 것처럼 인격적 결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가정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풍기게 된 것입니다.

3. 환란을 당할 때의 그리스도인

6.25 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민군들이 들어 닦았습니다. 종탑 위의 십자가를 부수고 강단 위의 십자가도 때내고 성경책, 찬송가를 짓밟고 사람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새끼줄로 모두 묶었습니다. 강단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

가서 이제부터 예수를 안받겠다고 말하고 침을 뱉으면 살려준다는 말에 목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예수를 믿겠는지 아니 믿겠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담담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 당신들 손에 죽는다 해도 나와 예수님 관계는 절대로 떼어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교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함께 하던 또 다른 청년 한 명도 담대하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인민군들이 이 둘은 당장에 죽어야 한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인민군 한 명이 “대장님, 이 두 놈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아래 골짜기로 데려가서 무덤을 파게 해서 그곳에서 두 놈을 썩 죽이고 오겠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청년은 죽을 자리로 끌려갑니다. 산등성이를 지나 계곡에 다다르자 그 인민군이 “나도 장모님 아들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하고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쏩니다. 이것을 신호로 이들은 달아나서 숨었다가 어둠기를 기다려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인민군들의 보급품을 나르다가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청년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청년들을 살려준 그 인민군도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훗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어진 하나님의 생명사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생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사기과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5면 설교문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음향 영상 미디어 세미나

음향, 영상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실제 교회 미디어 사역에 활용될 수 있는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예배와 교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음향, 영상, 녹음, 녹화, 편집, 설교CD 제작 및 배부 등의 기술까지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어 목사님들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12년 7월 9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 담임)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강사 : 음향(Audio) Nathan Kim, 영상 및 조명(Visual & Lighting) Justin Lee
그 외 Laservision World Staff
비용 : 무료

접수 : 김성일 목사(victorville4u@yahoo.com)에게 늦어도 7월 5일(목)까지
참석 여부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점심식사와 교재 및 영상 자료가 제공됩니다.



주최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주관 : 레이저비전 / 탑미디어 후원 :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 기독일보

LA기윤실 “통일을 앞당기는 교회” 포럼 개최

윤환철 사무국장, 박문규 학장, 성현경 목사 등 참여



기윤실이 통일 문제와 관련된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통일을 앞당기는 교회'(바람직한 대북지원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기획포럼을 6월 25일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박문규 학장(CIU), 성현경 목사(파사데나장로교회), 최순교씨(탈북인 사역자)의 패널토론으로 진행했다.

윤환철 사무국장은 한국정부의 정책 수렴과 일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국장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중 유효한 정책은 교류·협력 정책이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지점을 정책수립의 지점으로 삼고, 교류·협력이 있어 북한에 좀더 많은 선택지를 남길 것이다. 혹은 좀 더 엄밀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정권 고유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탈북인 최순교 사역자

는 "북한에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의 위하여'라는 구호가 있듯이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곧 북한 지도자를 돕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을 잘 아는 탈북자들이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북한 주민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성현경牧사는 "남한과 북한은 다른 문화와 사상, 역사의식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며 "서로간의 괴리감을 인정하고 이제 갈등을 넘어서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화해와 협력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지금은 긴 호흡을 하는 기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문규 학장은 "발제자가 탈북자들에게 대한 배려는 전문 인력의 도움이 있을 때만 허락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가뜩이나 좁은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며 "탈북자를 돕고자 하는 인사들에게 전문 인력을 통해 도우라고 한다면 그 자원 인력은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토마스 멍 기자

영적 전투의 현장, 계시록 12장을 통한 조망

이필찬 교수, 난해한 계시록 평신도 눈에 맞춰 강해



이필찬 교수

평신도들에게 생소하고 난해하다고 알려진 요한계시록 강해가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기쁨의교회에서 있었다. 초청된 강사는 이필찬 교수로 그는 종신대학교와 합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미국 칼빈신학교(Th.M.)를 거쳐, 영국 스코틀랜드 대학교에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리처드 보캄(Richard Bauckham)의 지도 하에 '요한계시록의 새어루살렘'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그의 저서로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복음 주해와 설교 시리즈' 등이 있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이 교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강해했다. 이 교수는 먼저 1절의 열 두 별에 대한 해석을 했다. 그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은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12 지파와 관련이 있다"며 "12제자는 12지파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성취를 의미한다. 이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를 이루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4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4만4천이라는 숫자를 이용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현혹되면 안된다. 이는 '12 x 12 x 1000'으로 풀이되며 약속의 12, 성취의 12, 전투하는 교회의 1000이 곱해진 수로 모든 크리스천을 포함하는 수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깊은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며 아들은 예수님을

뜻한다"며 "4절에 용의 의미는 사단으로, 문맥에 따르면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한다. 사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5절 이후에 나오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뜻한다. 이 여자는 나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라며 "그후 아들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광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양육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인정하면 삶의 행복이 온다"고 말했다. 토마스 멍 기자



요한계시록 연구의 대가 이필찬 교수의 강의를 평신도들이 경청하고 있다.

끈질긴 기도가 모든 꿈을 이룬 비결

미주평안교회에서 김명배 교수 간증집회

지난 20일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의 수요예배 시간에는 전 LA총영사와 전 브라질대사를 역임한 김명배 교수(현 호서대학교)가 간증했다.

김명배 교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으로 '생각은 높게 생활은 겸소하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교수는 "나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삼촌 댁에서 지내는 동안 외삼촌의 구박으로 인해 책을 놓고 살았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 형님과 같이 살면서 법대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낙방하고 말았다. 그후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어머니의 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듣게 되었다. 그 기도를 계기로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말자. 어머니께 상처를 주지 말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지난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그는 "본문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는지에 대해 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70점 정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5점에 불과하다. 이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했다"며 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그후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으로 있던 중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김사범'이란 사람을 만났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잡혀 풀려난 사람이었다. 가족들이 여동생의 집에 모여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그의 장자가 붙어 쓰러졌다고 한다.

결국 기도원에 끌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는 기도할 줄도, 찬송을 부를 줄도 몰라서 '하나님, 전 나쁜 놈입니다'



김명배 교수

다. 살려주세요'라고만 계속 기도했다고 한다. 어느 날 공중기도실에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살려 주겠다' 하셨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후 배가 고파서 밥을 두 그릇이나 먹고, 예배실로 돌아오면서 아픈 게 나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서 머물고 있던 중에 나를 만난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난 후 나도 기도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도할 때 '전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하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 기도가 내용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야곱의 압박감에서의 씨름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다. 내가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온 것이 여러분의 뜻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LA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곳에서 한국학교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기도가 원인이었다. 여러분의 비지니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이 큰 꿈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뤄주실 것이다"라고 간증했다.

이 집회의 사회는 송정명 목사, 대표 기도는 김순녀 권사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주최

영상음향미디어 세미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가 목회자들에게 유용한 목회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한다. 장소는 한미장로교회(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다.

영상음향 전문회사 레이저비전의 스태프들이 이 세미나에서 교회 사역 및 예배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영상 및 음향 등 미디어 사역을 활성화 하는 노하우와 팁을 전수해 줄 계획이다. 또 노회 측에서는 8기가 용량의 '김

명현 박사의 성경과학세미나' 동영상을 나눠줄 계획이다. 이 자료는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성경과학을 교육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 USB를 준비해 와야 한다.

노회 측은 "부목회자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2012년 하반기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세미나 후에는 친교와 교제의 시간도 있다. 문의) 760-220-3263

한주연 기자



온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

All Nations Baptist Church

온누리침례교회 3대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저희 온누리침례교회는 텍사스 알링턴(Arlington)에 위치한 15년 전통의 한인교회입니다. 1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제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1. 침례교단 목사안수자
2. 연령 : 만 40세 이상
3. 영어회화 가능자
4.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이냐 시민권을 받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차 서류면접 - 제출사항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가정배경, 구원확신계기, 목회자로 부르심 등)
3. 사역소명서 (사역기관 및 비전, 목회 철학)
4. 최근 설교녹음 1회분 (MP3)

>>제출기간 : 2012년 7월 6일 밤 12시까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전자메일(E-mail)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메일 주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nbc2412@gmail.com
(1차 합격자는 차후 개인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e-mail로 연락주세요.)

- 홈페이지 : www.onnurich.us
- 교회주소 : 2412 S. Bowen Rd., Arlington, TX 76015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신용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귀국선물 효도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6월30일까지)

알파4병 + 오리지널2병 = 6병(260톨)

100톨



프로모션 B (6월30일까지)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톨)

100톨



프로모션 B (6월30일까지)

알파1병 + 오리지널7병 = 8병(260톨)

100톨



신제품

알파

50톨/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톨/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음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쳐라와 처방해 준다던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행하던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용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호두과자 선교사 이야기 “나의 홈리스 사랑”

[인터뷰]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조병국 목사



홈리스들을 위한 호두과자 선교사들. 가장 좌측이 조병국 목사.

“그들이 배고프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강도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쓸모없고 냄새나는 사람을 왜 돕느냐고 하죠.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도와야 합니다. 계산하면 안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홈리스가 되는 이유 중의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다. 살고 있는 집의 월 페이먼트를 못하면 거리로 나앉아 홈리스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쉽게 범죄에 빠지는 것은 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만큼 유혹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되고 술에 찌들어서 정신을 놓고 살게 된다. 이러한 홈리스들을 위해 먹을 것을 먹이고

재우고 치유하는 한인 선교단체들이 많다. 조병국 목사가 섬기는 예수사랑세계선교회도 그 중 하나다.

빵공장 세워 매일 호두과자 전해

그의 선교회가 자리잡은 곳은 홈리스 구제 단체 집합지인 LA다운타운 샌페드로가 한복판이다. 그만큼 홈리스들도 많아 이들을 돕기가 용이하다. 얼마 전 이 선교회는 빵공장을 완비해 홈리스들을 돕기에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다. 이곳에선 최상의 재료로 고품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호두과자를 대량으로 생산해 매일 오전 6시에 홈리스들 200명에게 한 사람당 10개씩 나눠 주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후원을 받고 빵도 조달 받아서 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직접 준비해서 주워 해 왔어요. 빵을 직접 구워서 급식을 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교포들이 관심을 갖고 빵을 많이 사 줘서 힘이 되고 있어요. 홈리스들이 호두과자를 좋아해요. 제 별명이 호두과자 선교사입니다.”

그의 홈리스 사랑은 각별하다. 미국에 20년 전에 와서 홈리스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6.25 동란 때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은 것도 계기가 됐다는 그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어렸을 때 배가 많이 고팠어요. 한번은 미군이 학교에 가족 사료용 우유가 든 큰 드럼통을 보내왔

습니다. 그것을 큰 주전자에 끓여 컵에 따른 뒤 학생들이 먹곤 했습니다. 이제야 저도 그 사랑을 갚게 된 셈이죠.”

홈리스 재활과 취업 돕기 위해 컴퓨터 및 컴퓨터실 마련

그가 홈리스 사역을 시작한지는 13년이 됐으며, 다운타운으로 들어온 지는 2년이 됐다. 이 2년 동안 선교회는 주거지 준비, 실내 전기 및 배관 등 전반적 공사를 해 왔으며 홈리스들이 회복되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컴퓨터 및 10대 이상의 데스크탑이 마련된 컴퓨터실을 곧 구축할 예정이다. 컴퓨터에는 다이어몬드의료기에서 기증한 병원 침대가 준비됐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재활훈련시설도 구비됐다.

조 목사는 홈리스들을 섬기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죠. 이곳 컴퓨터에서 알콜중독자가 회복된 케이스와 탄자니아에서 온 어려운 사람과 한국 교민이 회복돼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웃에게 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죠. 많은 교민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준다면 힘이 결집돼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위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 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가 하는 사역은 급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1999년부터 양로병원 사역도 계속하고 있으며, 홈리스들의 집합소인 샌페드로 거리가 깨끗하지 못한 형편이라 거리 청소에도 참여하고 있다. 2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두 팀으로 나눠 10명은 급식, 10명은 거리청소를 한다.

“아이들도 참여하는데 청소 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합니다. 집에 돌아가 자기 방도 청소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생깁니다.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선교회에서는 매년 11월 샌페드로 거리 근처에 있는 Gladys Park에서 홈리스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 오고 있다. 올해는 8회째다. 음악회에서는 담요 500장이 배부되고, 많은 교민들이 봉사에 참여한다.

선교회에서는 현재 개인 도네이션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빵을 팔아 재정을 마련해 홈리스들에게 호두과자를 나눠주고 있다는 그는 지역사회 교민들에게 호소한다.

“자비량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뒤에서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꼭 앞에서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이는 쓸모없는 사람일수록 동정하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도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후원 문의) 213-445-2488

213-624-0048

토마스 멩 기자



매일 아침 홈리스들을 위해 호두과자를 굽는 사역자들.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번비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1-20방학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모집 (2012년도 가을학기)

뉴올리언즈 침례신학 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1. 지원 자격**
M.Div. (목회학 석사)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M.Div.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역 경험
M.Div. 과정 GPA 4.0 만점에 3.0 이상의 평균학점
- 2. 제출 서류 및 마감일**
제출서류: 입학 원서 패키지는 아래 전화 및 이메일로 요청시 이메일로 발송
마감일: 2012년 7월 5일
입학 서류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3. 입학안내**
유학생에게 1-20방급
Toefl 불필요
모든 세미나 및 워크샵은 아틀란타에서 진행
- 4. 프로그램 구성**
워크샵 (3과목 6학점)
세미나 (6과목 18학점)
졸업논문 (6학점)
- 5. 입학문의**
목회학 박사과정 Director (이종길 교수): 셀폰 (404)335-8150, 이메일 jglee@nobts.edu
한국에서 연락처 070-8245-8210
웹사이트: http://www.nobts.edu/CME/korean-d.-min.html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1 / Fax: 424-257-8136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위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여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무료 음향 영상 조명 컨설팅 및 System Check-up
 문의 323.730.5050

Blackmagic Cinema Camera
 Featuring a wide 13 stops dynamic range, 2.5K resolution, EF & ZE lens compatibility, SSD recorder, RAW, ProRes and DNxHDI

\$2,995 Body +Lens(Optional)

ATEM Television Studio
\$995

SONY NEX-VG20H
\$2,199

Blackmagicdesign vimeo USTREAM
 저렴한 비용에 고화질 HD급 예배 중계 시스템을 설치 하실수 있습니다.
 ATEM Television Studio 하나로 고화질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까지 All in one System 을 구축해 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Logos for: Sennheiser, Shure, JBL, Meyer Sound, Bogen Imaging, NEXO, ROBE, EAW, SONY, SANYO, TASCAM, Bose, Panasonic, Shure, Christie, Edrol, Digico, Aviom, Leviton, Martin, JVC, Extron, Sharp, Sennheiser.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 새벽 예배 6:20

갈릴리산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45 영어찬양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강화)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성령부흥)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글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학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례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00

남가주펠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침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바다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믿으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성교회예배 오후 12:00

벤틀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학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말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말-금) / 6:00 (토)

세리투스장로교회
세리투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ilovecc.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기 Crocker St.)
1부기러기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7
T. (213) 385-4515 / F. (213) 385-547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할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영혼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열매, 사랑과 감동으로 나누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 오후 7:30 **우대원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수요일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반교회는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 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홀름, 스. 친. 초. 정신의 홀름, 비튼교회관의 홀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hyun.org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룸) 수요일 오후 7:45
오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하나로커뮤니티교회**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수요일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말-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민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감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삼감의 사랑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결혼은 남녀의 결합” 동성에 반대

SBC 역사상 최초의 흑인총회장도 선출돼

뉴올리언즈에서 열리고 있는 남침례교회(SBC) 연차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20일 총회에 참석한 수천 명의 총대들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문구와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의 성적인 행동들은 죄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 언론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 최대 개신교단인 SBC가 백인 남부의 기반을 넘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영역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동성결혼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대선과 맞물려 미 전역에 일고 있는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이 때때로 겪는 ‘특별한 어려움(동성애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은 (창조된 원래의 모습인)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특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동성애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과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인권운동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장하는 것에 유감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선언문에서는 미 법무부가 전통적인 결혼보호법안을 뒤집으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과, 오바마 행정부가 군인·군목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몇몇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과 지도자들, 가톨릭 지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종교적인 자유를 위



SBC 역사상 최초의 흑인총회장 프레드 루터 목사

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감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텍사스 알링턴 코너스톤침례교회 담임이자 동성결혼에 대한 책을 저술한 드와이트 맥키시 목사는 결의안 통과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알람을 다시 울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성애자들이 동성간 결혼을 시민운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선호가 피부색과 같이 태생적인 특징이라는 것에는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흑인인 그는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죄를 나의 피부색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에모리대 신학대학 침례교연구소 디렉터 데이빗 W. 키 Sr. 교수는 이번 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선언문에 대해 “SBC는 어떠한 형태로든 동성애자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증오하는 태도나 말들, 그리고 혐오하는 의도가 담긴 행동들로부터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복음주의에

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확고히 할 필요가 있지만 반대하지 않

는” 입장을 가진 많은 이들이 SBC의 결정에 대해 무례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SBC는 지난 8년간 친동성애 정쟁을 가진 윌트 디즈니 사를 보이콧 하는 등, 비슷한 신념을 가진 다른 교단들과 달리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공연히 표현해 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19일 SBC 167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총회장이 탄생했다. 과거 흑인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남부 백인 중심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SBC로서는 엄청난 사건이다.

교단 지도자들은 “프레드 루터 Jr. 목사의 총회장 추대는 인종에 의해 갈라졌던 과거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이며, SBC가 진실로 더욱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총회장 투표 이후 루터 목사는 뉴스 키퍼런스에서 자신의 선출이 “형식적인 제스처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나의 선출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된다면 실패한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앞으로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희 기자

PCUSA한인 “동성애 심판 받을 것”

NCKPC총회, 한인목회자 정체성 재확인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가 “개혁 신앙과 성서의 권위”라는 주제 아래 콜로라도주 덴버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2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열렸다.

이번 총회 임원선거를 통해 41대 총회장에 임형태 목사(콜로라도스프링스한인연합교회), 부총회장에 유승원 목사(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가 선임됐다.

특히 이번 총회 주제강의는 PCUSA 한인목회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박미영 교수(Beeson Divinity School - Samford University, 신약학 박사)와 이원우 교수(Calvin College, 구약학 박사)가 맡았다.

박 교수는 성경적으로 볼 때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동성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성적 안수 기준의 완화를 가져온 미국장로교 헌법(규례)의 개정으로 성서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개탄하

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동성애자 성직 안수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NCKPC는 이번 주제강의를 통해 NCKPC 신학적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안건토의에서는 ‘화해평화인권위원회’와 ‘미래진로위원회’의 조직을 결의하고 위원 구성을 임원회에 위임했으며, 별도로 모인 임원회에서는 화해평화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배현찬 목사(주예수교회), 미래진로위원회 위원장에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교회)를 선임했다.

셋째날 열린 NCKPC 부흥회에서는 허봉기 목사(전양교회)가 감사로 나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 보면서 아쉬운 면을 고백했다. 이어서 그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라”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소개하며 사람만이 진정한 영성임을 강조했다.

부흥회 후에 열린 작은 음악회 시간에는 한국의 이광희 음악선교사가 간증과 함께 “나의



41대 총회장 임형태 목사

남은 생애는”, “달리다굼” 등의 복음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방문한 외국 형제교단의 총회장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PCUSA 총회 선교담당 사무총장 로저 더모디(Roger Dermody) 목사가 PCUSA의 근황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총회 기간 중 에스테스 국립공원과 콜로라도스프링스 선교단체 분부 견학팀을 각각 구성해 단체관광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이번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탈북자 인권 앞장서는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들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이 미주 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 안명훈 목사, 이하 KUMC) 소속 목회자들이 탈북자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KUMC가 공식적으로 탈북자 인권보장을 위해 힘쓰기로 한 결정은 지난 4월 18일 힐튼 우드클리프 레이크 호텔에서 열린 KUMC 정기총회에서 내려졌다.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KUMC 차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KUMC 통일위원회를 통해 최근 주미 중국대사관에 결의안을 발송했다. 결의안은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며 자유를 추구하고 복한을 탈출한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며,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이들은 최소한 징역형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유엔 헌장에 의해 탈북자들의 망명을 허용하고 인도주의적 치료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KUMC의 탈북자들을 위한 관심은 현재 결의안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을 위한 조직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탈북자 인권을 위한 활동이 단순한 일회성 입장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미주 전 지역에 있는 KUMC 목회자들은 탈북자 인권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가면서 미주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하시는 분 하숙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취급 품목

오징어젓	고추전어	연근조림	명란젓	마늘쫄무침
어리굴젓	양념게장	우렁된장	창란젓	고추잎무침
가리비젓	양념갯잎	냉이된장	낙지젓	장어구이포
황새기젓	간장갯잎	간장고추	조개젓	파래무침
더덕무침	된장갯잎	된장고추	갈치젓	무말랭이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213)256-4707

자동차! 토네이션

남加州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것입니다.

<한석호 목사의 성경상식 바로 알기>

신약성경에는 신약성경이 없다?



한석호 목사
남가주임마누엘교회

명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나오는 성경을 전체 성경으로 보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을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따지면 이는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읽을 때는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생각하며 읽을 때 저자의 본 뜻과 생각에 더 가깝게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시대는 어느 시기를 가리킬까요? 이 시기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활동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사역의 내용은 있었지만 신약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후에 이들과 관련된 사료의 수집자들과 편집자들에 의해 완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모두 구약성경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언급한 유명한 몇 구절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의 “모든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물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우리의 신앙 생활의 교본이요 절대진리임은 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여 증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의 성경도 물론 구약을 가리킵니다. 이 문맥에서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로 읽어야 그 뜻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구약성경”으로 읽어 보면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3: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구약)성경을 알았나니 (구약)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4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행전 18: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구약)성경에 능한 자라”



이은숙 원장
새빛한의원

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저장하고 통제·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운은 막힘이 없이 전신에 고루 퍼져야만 하는 것이다. 또 간은 화(火)를 담당하는 장부이므로 스트레스에 제일 민감하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하면 당연히 오장육부 중 간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간의 기운이 잘 소통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막히면 제일 먼저 비위 즉, 소화기

스트레스와 간 그리고 과민성 대장염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스트레스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별로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느끼며 힘들어 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또는 ‘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심하다고 느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심한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심하지 않다고 느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별것 아니다. 따라서 세상만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 양의학적으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양의학에서는 이를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진단하며 특별한 약이 없다고 말한다. 스트

레스를 받으면 설사나 변비가 발생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몸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정맥은 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간이 스트레스로 움츠러들면 혈액이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반면 동맥을 통해 이 부위로 혈액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위, 소장, 대장 등의 모든 부위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충혈된다. 그러니 당연히 위나 소장이나 대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위가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소장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장이 문제가 되고 각각의 사람들의 장부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병리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스트레스가 소화불량, 위궤양, 두통, 가슴답답함 등을 일으키는 데 평소 대장의 기능이 다른 장부에 비해 약한 사람은 다른 장부보다 대장이 제일 먼저 심하게

타격을 받아 설사나 변비를 일으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스트레스로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오산이라는 일명 “스트레스탕”을 처방하는데 이 약은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물론 한의학에서는 절대 안 있을 수 없다. 개개인의 진찰과 진단을 토대로 처방의 가감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병을 같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각기 나타나는 병증은 다르지만 그 병이 나타난 원인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이병동치(異病同治) 즉, 병은 다르지만 치료는 같다고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설사, 변비 등의 과민성 대장염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장이 예민해지며 무력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KC의 살아있는 세무 정보 2>

IRS 권장사항: 어떤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까?



KC CHOI
TAX HELP TEAM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처압해결 밀린 세금 식감, 세무감사 대비

사업을 하고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출 중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세금일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갖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은 거의 본능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꽤나 알려진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귀사를 방문

하셨습니다. 이 분은 비즈니스 매출의 축소 보고 의혹을 받고 IRS와 주정부의 세일즈 택스 감사에 걸려 계좌에 있는 돈이 강제 인출되고, 계좌가 폐쇄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잘나가는 사업을 팔려고 내어 놓으시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종합해 들어보면 결국 사업은 잘되지만 남은 돈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명성이 높아 잘만 운영하면 소위 알짜배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와 다른 사업의 실패로 인한 자금 부담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고, 거기다 감사까지 걸려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택스 헬프팀은 고객의 파이낸셜 상황을 분석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전략 수립에 들어 갔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공적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비즈니스 컨설팅까지 해 드리고,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많은 한인 분들이 건설이나 식당업같이 워킹페이먼트나 소셜네트워크 없는 라틴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쓰는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등 지출의 증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감사에 걸리게 되면 IRS나 주정부는 모든 지출의 증거들을 확보해서 사업주들을 꼼짝 못하게 죄어 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거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등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소명자료들을 잘 준비하고 계산하면 충분히 IRS를 설득하고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 KC의 첫번째 이야기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드렸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기록을 유지 하셔야 하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특정한 기록의 종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분야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 거래 요약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요약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부에 작성합니다. 장부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총소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기업에서는 사업수표(Business Checkbook)가 기업항목의 주된 출처가 됩니다.

장부와 더불어 증빙문서들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 판매, 급여 지급 및 기타 거래를 통해 송장이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문서가 생성되는데, 매출 전표, 지급한 청구서, 송장, 영수증, 예금전표, 지출 수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문서는 장부와 세금보고서의 입력 내용을 입증하기 때문에 연도별, 항목별로 잘 정리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IRS의 권장사항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번째 이야기에서는 기록의 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RS, BOE, FTB, EDD 풀리지 않는 세금 문제 문의는 (213) 219-7423

기독교일보

편집인: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민규 편집국장: 토마스 맵
지사장: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453-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증이 억제됨
4. 식후에 갈 심해 복통이 없습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초박시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 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블부황/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당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213.271.7002 웨스턴파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펠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드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0주년

50년 경험방으로 특수치료 **50% 할인가격**으로 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세계일류 상품 인증 획득 미주총판 www.Caidrox.com

2011 大賞

*Black Box(사랑을 영상 저장장치)란? 주행이나 주차시 대기(차 없음) 모든 사건 사고등을 영상으로 속도, 위치, 시간,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일한 목격자**
Black Box LA, INC. T.562-495-9987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처리경험 풍부 www.UsCpaLegal.com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전담한 선생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 미노민도 복용 필수입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당문 때까지 치료)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국제개혁대학교 황은영 총장 인터뷰

“영적 부흥운동의 구심점
기도하는 신학교 만들 터”

신학교 총장. 목회자라면, 선교사라면, 심지어 목회자 후보생들까지도 누구나 인생에 한번쯤 꿈꿔 볼만한 매력적인 직책이다. 지난 20일 오전, 미주 한인 보수신학의 상징인 국제개혁대학교의 황은영 총장(65)을 만났다. 총신대 제70회 졸업생인 그에게,故 김인환 총장을 비롯해 총신 전·현직 총장과 교수 동기들이 많이 있다. 특히故 김 총장과는 학창시절 함께 기도하며 학풍(學風), 영풍(靈風), 정풍(整風)이라는 3풍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황은영 총장

그는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에서만 35여년을 살았다. 그곳에서 목회에만 자그마치 20여년이란 시간을 쏟았다.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28대 총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한때 세계선교회를 조직해 선교에 열정을 쏟아 부었고, 3년간 교단 신학교관리위원회를 맡아 섬기기도 했다. 또한 동부 개혁장로교신학교에서 교수로, 학생처장으로, 이사장으로 섬긴 이력도 갖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역에서 섬긴 그는 LA에 신학교 총장으로 오게 될 줄은 미처 생각 못했다면서도 “돌이켜 보면 동부에서 신학교뿐 아니라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일했던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 같다”고 고백한다. 그러다 국제개혁대 총장직을 맡아 LA에 온 지는 이제 겨우 2년. 그는 “완전 다른 나라에 이민 온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하루 하루 지나면서 사는 것도 정이 들게 된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명의 발달과 더불어 제도과 지식과 물질의 힘을 빌리다 보니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과거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옥스포드에 다니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 기도운동을 펼친 것처럼, 이 시대 신학교 안에서도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랜 목회현장에서 새벽제단을 쌓으며 영성 훈련을 받은 그는, 총장 부임 이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1시간씩 학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다고 한다. 기도하는 총장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국제개혁대에는 올해 기도하는 동아리가 새로 조직되기도 했다. 19세기 말 미국 학생선교운동의 시초가 된 뉴잉글랜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일어난 ‘건초더미의 기도회’를 본따 신학교 기도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시도다.

황 총장은 실제로 신학생들을 데리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8일부터 1박2일간 기도원에 가서 영성수련회를 열 계획이다. 그는 “신학교니까 당연히 학문에 정진하는 건 기본”이라면서 이에 더해 “역사에 길이 남는 신학교 기도운동을 일으켜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한나 기자

환자의 식생활까지 바꿔주는 한의사

아내의 병 연구하다 구내염과 위장치료 전문의 된 유익중 원장

한방치료를 침과 한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식생활까지 바꿔줘야 한다’고 말하는 유 원장은 할아버지의 친구를 통해 한의사의 꿈을 키웠다. 그가 로얄한의대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한의사로 일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돼 간다.



유익중 원장

그는 아내의 구내염과 위장병을 치료하다 보니 구내염, 위장치료 전문의가 되었다. 앞으로 그는 단기의료선교팀을 꾸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현지인들에게는 선교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며, 인생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다.

-한의사의 길은 어떻게 택하게 되셨나요?

6살이나 7살 무렵 할아버지 친구분 중 한의사였던 분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나이에 환자의 맥을 잡고 침을 놓으며 치료하는 그분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또 외갓집이 시골이어서 그곳에 가면 한의에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84년에 미국으로 이민 와 로얄한의대에서 공부를 시작해 93년도에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의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의원과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구취와 구내염, 위장 장애를 잘 치료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구내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는데, 아내를 위해 그 증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당뇨나 발기부전도 치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또 헬스관이 적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문제를 지닌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굴이 항상 창백해서 기운도 없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혈이 있어야 기운이 있는데 그래서, 혈과 기를 보호하는 약을 다른 사람의 배로 쓰니 치료가 됐습니다.

저는 환자를 대할 때 병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병이 생기게 됐는지를 봅니다. 저의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제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자의 ‘식생활까지 바꿔줘야 치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환자를 대하다 보니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고

더욱 연구에 정진하게 됩니다.

-신앙은 언제 시작하셨고,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저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도 새벽기도회는 꼭 나가시는 독실한 권사님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벅속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했지만, 제가 자랄 때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런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회의가 들어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점차 믿음이 17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후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문답을 공부하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김성민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나성한인교회이고 저는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 목사장로부부합창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세례를 받기 전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목사장로부부합창단을 김중민 장로가 창단했을 당시 그분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고, 2년 동안 베이스로 1회, 2회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기의료선교를 꾸준히 다니고

싶습니다.

단기의료선교를 통해서 현지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줄 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선교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다녀오면 현재 제 자신의 자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파송보낸 선교지에 해마다 몇 팀이 나누어서 단기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저는 아프가니스탄과 멕시코를 다녀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여성들에게 침을 놓는데도 아무도 아프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여성들이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게 다가 왔습니다. 또 멕시코의 오지로 갔을 때 기억에 남습니다. 침이나 한방치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와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옮겨 다니며 치료해야 했습니다. 밤에 보니 제 몸에 땀띠가 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자로 섬기고 있는 목장의 팀원들과 함께 꾸준히 단기의료선교를 갈 계획입니다. 목장 안에 의사도 있고, 약사 출신도 있고, 미용하는 분도 있으니 다 함께 가뭄을 뚫는 단기의료선교팀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나 신앙에 힘을 잃은 분도 함께 다녀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빅터 박 기자

Advertisement for iTalkBB international calling service. Features a large '\$9.99' price tag, a woman on a phone, and text promoting 'AT&T, Verizon 비싼 전화요금 이제 안녕!' (Expensive phone bills are goodbye!). Includes contact info: 1.800.872.2902 and www.Korea.iTalkBB.com.

2012 최신행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력서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499 +TAX (STK:049208)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39,422
T.D.O: \$5,400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GENESIS



269 +TAX (STK:197000)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35,225 Residual : \$19,726 T.D.O: \$2,4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O,A,C)

**6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6월1일~30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2012 Sonata GLS M/T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29 +TAX (STK:465125)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 \$20,970 Residual : \$12,162 T.D.O : \$1,9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6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